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6월 18일(주일) 제1152호



SENT 보냄 받은 자

6월 22~24일 서빙고 본당 직장인 여성 위한 저녁집회도 마련

순백의 마리아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차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부르짖는다. 2017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주제는 'SENT 보냄 받은 자'다.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들썩였다. 사전등록 인원이 순식간에 3647명을 넘어섰다. 아직 참가신청을 하지 못한 성도들은 망설임 시간이 별로 없다. 오전집회는 오늘까지만 참가신청을 받는다.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을 위한 저녁집회는 21일까지 온라인(www.onnuri.org)에서 모집한다.

올해 마리아행전 'SENT 보냄 받은 자'에서는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돌아키는 자',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예수 닮은 자', 이재훈 담임목사 '보냄 받은 자'를 주제로 강의한다.

올해는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마리아들을 위한 저녁집회도 준비했다. 22일 저녁 7시 30분 김윤희 교수(FWIA 대표) '마리아 정체성', 23일 저녁 7시 30분 김하중 장로가 '마리아 영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흰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2017년 상반기 공동체 종강예배 일정 ■

서빙고				양재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6월 20일(화)	한강	비전홀	18:00	6월 18일(주일)	하모니	비전홀B	17:20
6월 25일(주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17:00	6월 20일(화)	분당A	화평홀	18:30
6월 25일(주일)	특별한초대	순형홀	17:00	6월 20일(화)	서초A	온유홀	19:30
6월 26일(월)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18:00	6월 20일(화)	서초C	드림홀	18:00
6월 27일(화)	가정사역	한동홀	18:00	6월 21일(수)	강남A	드림홀	19:00
6월 27일(화)	강서	두란노홀	18:00	6월 21일(수)	과천의왕	화평홀	19:00
6월 27일(화)	서빙고	시온홀	18:00	6월 21일(수)	안양평촌	온유홀	20:00
6월 27일(화)	양천	비전홀	18:00	6월 25일(주일)	푸른누리	온유홀	16:00
6월 29일(목)	관악금천	한동홀	18:00	6월 27일(화)	양재	화평홀	19:00
6월 29일(목)	광명	온광교회	19:00	6월 28일(수)	강남B	화평홀	18:30
6월 29일(목)	김포	비전홀	18:00	6월 29일(목)	CMN	드림홀	19:00
6월 29일(목)	노원	상현교회	19:00	6월 30일(금)	분당B	화평홀	19:00
6월 29일(목)	여의도	두란노홀	18:00	6월 30일(금)	Point5	온유홀	20:00
6월 30일(금)	강촌	비전홀	18:00	7월 1일(토)	서초B	화평홀	17:00
6월 30일(금)	성동광진	한동홀	18:00	캠퍼스			
6월 30일(금)	용산	두란노홀	18:00	6월 25일(주일)	부천 사랑	비전홀	16:00
6월 30일(금)	이촌	시온홀	18:00	6월 30일(금)	부천 화평	비전홀	19:30
7월 1일(토)	고양은평	진관교회	17:30	7월 1일(토)	부천 믿음	비전홀	16:00
7월 2일(주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18:00	7월 9일(주일)	부천 소망	비전홀	16:00
7월 4일(화)	S브릿지	한동홀	18:00	-	부천 희망 다락방별 종강	-	-
7월 4일(화)	신용산	시온홀	18:00	7월 5일(수)	수원(공동체 연합)	본당	19:30
7월 4일(화)	이수	비전홀	18:00	6월 30일(금)	대전 유성-분당, 동누리-비전홀, 중서-경보B 누리홀		19:30
7월 4일(화)	중종로	두란노홀	18:00	6월 23일(금)	남양주 B공동체	식당	19:00
7월 6일(목)	성북	한동홀	18:00	6월 30일(금)	남양주 A공동체	본당	20:00
7월 7일(금)	동작	두란노홀	18:00	6월 25일(주일)	평택 요한다락방, 비올다락방	본당	16:00
7월 7일(금)	서대문	한동홀	18:00	6월 23일(금)	인천 사랑	프리스페이스 3층	19:30
7월 7일(금)	천양사역	시온홀	18:00	6월 30일(금)	인천 믿음 / 소망	프리스페이스 3층	19:30
7월 11일(화)	동대문중앙	시온홀	18:00	6월 29일(목)	강동 B	본당	20:00
7월 11일(화)	마포	한동홀	18:00	6월 30일(금)	강동 A	사랑홀	20:00
				6월 18일(주일)	양지 연합	박모세홀	14:00

차세대 여름사역 시작

8월 26일까지 여름캠프와 아웃리치

차세대사역본부가 본격적으로 여름사역을 시작했다. 포문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어진 전국교사강습회 '창조탐험대'가 열었다.

지금은 여름캠프를 앞두고 있다. 7월 1일 서빙고 영아 1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 서빙고 초 등 1부, 소년 2부, 양재 유년 2부까지 여름캠프가 이어진다.

올해 차세대 아웃리치에는 48개 팀 714명(국내 17팀 344명, 해외 31팀 370명)이 참가한다. 8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해외 아웃리치는 차세대 연합팀이 선봉에 섰다. 지난 12일부터 오늘(18일)까지 남아시아에서 선교사 자녀 100명을 위한 캠프



를 마치고 돌아왔다. 서빙고 JDS KIDS는 오늘 남아시아 B국, 파워 키즈는 7월 31일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FT(Frontier Teens)는 8월 1일 남아시아 H국으로 아웃리치를 간다.

/ 이소정 기자



르포_ 스리랑카 홍수 피해지역을 가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1일 홍수피해를 입은 180가구에 긴급구호 물품과 쌀을 나누어 주었다.

희망이 생기고, 생명력이 움트다

NGO 더멋진세상, 구호물품 전달, 우물 청소
주민들 “그 사랑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며 눈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봤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인한 생명력이 움트다.

스리랑카에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비가 쏟아졌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어진 최악의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67만 명의 수해피해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심각했다. 14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재난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잠겼고, 생명도 희망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았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 ‘NGO 더멋진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전도사와 함께 웃음을 되찾았다. 스리랑카 홍수 피해지역 긴급구호 현장에 다녀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한시가 급했다. 한시라도 빨리 스리랑카 홍수 피해 현장에 가서 그들을 만나야 했다. 지난 10일 새벽 4시30분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도 않았지만 서둘렀다. 다시 자동차로 2시간을 더 달려 스리랑카 남부 엘피티어(El Pititiya)로 향했다.

김창욱 사무총장과 더멋진세상 직원, 한국인 선교사, 현지인 목사들로 구성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가장 먼저 스메나교회를 찾았다. 현지인 람(Ram)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다. 성도 250명이 출석하고 있다. 이 지역 홍수 피해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긴급구호팀이 도착한 교회에는 터전을 잃은 120가구 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더멋진세상은 서둘러 긴급구호품과 쌀 10kg을 전달했다. 어디 하나 괜찮은 사람이 없었지만 스메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찬덜라파(여, 53세) 성도의 사연은 더 기구했다. 그녀의 남편은 16년 전 사망했다. 자녀 2명을 혼자 키워야 했는데 딸 한명이 다온증후군 장애인이라 생활이 더 힘들었다. 4년 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삶을 살게 됐다. 찬덜라파의 주요 수입원은 벼농사다. 올해 쌀 17가마를 수확했는데 이번 홍수로 한 톨도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육체의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이 그녀를 더 허기지게 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저희 집에 30명이 모여 성경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홍수로 집이 손상됐어요. 더 이상 성경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더멋진세상은 홍수로 손상된 집을 수리해주기로 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더멋진세상의 구호계획이 그녀를 다시 웃게 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공급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어요. 더멋진세상이 달려와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시다.”

이번에는 나버러왓트로 향했다. 이곳은 180가구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 이 마을에 처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단체가 NGO 더멋진세상이다. 워낙 넓은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다른 NGO단체들의 도움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이 빠진 상태였다. 한 주민은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을 보자마자 외벽을 가리키며 홍수가 났을 당시 수위가 얼마나 높았었는지를 알려주었다.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였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물은 빠졌지만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고통은 여전했다. 이 지역은 주로 홍차나무와 계피나무를 경작한다. 물에 잠겼던 계피나무는 물이 빠지자마자 고사하고 있었다. 홍차나무도 흙더미에 오염되어 당분간 잎을 따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식량 구하는 일이 막막했는데 더멋진세상이 왔다. 구호물품과 쌀을 받은 주민들이 한시를 놓았다는 긴 탄식을 내뿜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번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연합의 힘으로 빛을 발했다. NGO 더멋진세상, 스리랑카에 파견된 선교사들,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국경과 종교를 뛰어 넘어 한마음이 되었다. 아누라(Anura) 목사와 뿌자(Puja) 사모와 가족들이

구심점이 되었다. 더멋진세상이 뿌자 사모의 고향인 엘피티어 지역을 돕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아누라 목사 부부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피해조사, 물품 구입, 정부와의 접촉 등 굵은일을 도맡았다. 뿌자 사모의 부모도 더멋진세상이 긴급구호 물품을 포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집을 내놓았다. 청년 봉사자들에게 식사도 제공했다.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지역 청년들도 더멋진세상에 힘을 보탰다. 긴급구호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여 들었다. 오염된 우물을 청소하고, 가정마다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홍수피해 이후 최선을 다해 우물을 청소했지만 냄새가 나고, 흙탕물이 고인 곳이 너무 많았다. 아직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양동이로 물을 퍼서 새 물이 고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더멋진세상과 이 지역 청년들은 수증펌프를 동원해 흙탕물을 완전히 퍼내고, 직접 우물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했다. 처음에는 우물 4개를 청소할 계획이었는데 욕심을 냈다. 그만큼 의지가 불타올랐다. 아무리 힘에 부쳐도 주민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맑은 물을 줘야 했다. 물 한 모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청소했더니 우물 10개를 원상복구시킬 수 있었다.

긴급구호 활동은 매우 바쁘게 돌아갔다. 홍수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주민들에게 나눠 줄 물품을 일일이 구입해야 했다. 돈이 있다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야 했는데 사정상 그럴 수 없었다.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게를 돌면서 조금씩 물건

을 구입했다. 그렇게 구입한 물품을 뿌자 사모의 부모 집에서 정성껏 포장했다. 늦은 밤까지 작업이 이어졌지만 누구 하나 손을 쉬지 않았다.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물품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

더멋진세상은 어린이들과 임신부 등 취약계층 구호작업에 집중했다. 피해조사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6곳 350명의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홍수로 가방, 책, 공책이 물에 젖어 학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멋진세상은 학용품과 함께 응원메시지를 전달했다. 학용품을 전달받은 아이들은 “공책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었는데 선물 받은 학용품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개월 내 출산한 산모와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위한 마마킵트(mamakit, 산모용품) 200개도 보급했다. 오는 24일까지 더멋진세상은 550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60개 우물을 청소할 예정이다. 긴급구호 활동에 여념이 없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 긴급구호 활동을 도왔던 스리랑카 청년 아산티는 “더멋진세상이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돕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고백하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현지인 샘은 “더멋진세상이 아끼지 않고 나눠준 사랑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독교 인구 7.5%인 스리랑카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스리랑카 이웃들이 빨리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때나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고, 그때가 아니면 놓쳐 버리는 선한 일도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찍힌 감동적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진을 ‘아메리칸 피에타’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진 속에 누워 있는 사람은 뉴욕 소방서의 사목 마이를 저지입니다. 그는 건물 파편에 맞아 죽어 가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기도해주다 자신도 파편에 맞아 죽었습니다. 동료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그의 시신을 옮기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만약 그가 현장을 피했으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손잡아 주고 기도해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순간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피할 때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지라도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려다 자신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네 원수도 네 형제다”

오늘 본문은 “못 본 체하지 말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사랑의 중요한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네가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네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1절).

“마찬가지로 너는 네 형제의 나귀나 겔옷도 그렇게 하며 네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체하지 마라. 만약 네가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주어라”(3-4절).

어떤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 없는 매우 실체적인 교훈입니다. 한 마디로 “네 형제의 소나 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쩌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조상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 형제자매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소유일지라도 형제애식이

있다면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소나 나귀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들이 소나 나귀를 잃었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중요한 수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동물들도 생명을 보호받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이집기 23장 4-5절 말씀에는 형제라는 단어 대신 원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네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출 23:4-5).

형제자매라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지만 원수라면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의 소유라면 굳이 그 사람의 잃어버린 소유물까지 신경을 쓰고, 주저앉은 나귀까지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원수의 나귀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 위에 돌이라도 얹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도 네 형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못 본 체하지 말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숨다’는 단어의 재귀형입니다. ‘너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숨깁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자신을 숨기는 성향이 왜 생겼을까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이후 우리에게 숨는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선택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로부터도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하는 순간과 그냥 지나치고 싶어 하는 순간을 주목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회개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란 바로 그때에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을까요. 봐도 못 본 척 지나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속일 수 있는지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못 본 척 지나쳐도 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십계명과 연관시킨다면 어떤 계명과 관련 있겠습니까. 제 8계명인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찾아줄 수 있는데 방치함으로써 남의 것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지나칠 정도로 합리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나는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 “나는 법을 어길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며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도움이 필요했고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또 다른 율법에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원수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그때 즉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느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교묘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때를 피해가려는 교묘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뜻은 이웃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질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질문이 많아집니다. 이웃의 정확한 정의를 몰라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의 질문입니다. 전자는 축소하는 질문이고, 후자는 확장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네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네가 도와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인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실제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우리 눈에 들어와 있지만 뇌 속에 저장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눈을 감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못 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이웃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요일 3:17).

아카데미상을 다수 수상한 ‘윈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대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과 거래하며 돈을 벌고 있던 ‘윈들러’라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1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살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자신은 도망자가 되어버린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여성과 교회

교회와 민족의 부흥은 여성으로부터 시작됐다

민족과 나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세운 주역은 여성들이었다
시대는 바뀌었어도 여성들의 '중보자, 동역자' 역할 변하지 않아

교회와 민족의 부흥은 여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물리적인 힘은 부족할지 몰라도 역할만큼은 결코 약하거나 작지 않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상을 바꾼 여성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도 여성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위기의 순간마다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고, 교회 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해냈다.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진'을 앞두고 역사를 바꾼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 시대 여성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활약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탁월한 지도력과 특유의 리더십으로 민족과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탈출시킨 여성들이 정말 많다. 출애굽의 여성 지도자 미리암, 가나안에서 태평성대를 이룬 예언자 드보라, 이주노동자에서 다윗의 조상이 된 롯, 요시아 종교개혁을 이끈 홀다, 민족을 살린 고아소녀 에스더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어디 이뿐인가. 신약에도 여성 리더들이 등장한다.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람도,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도 역시 여성(갈릴리 여인들)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 직전 한 명의 제자(남자)도 남지 않고 도망쳐버렸을 때 예도 갈릴리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하지 않았다.

구약의 여성 리더 '미리암과 에스더'

출애굽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모세다.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며, 히브리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는데 초석을 놓은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데 그가 혼자서 출애굽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것이 아니다. 그의 곁에는 늘 그를 빛나게 해준 조연이 있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다. 모세오경에서 미리암은 일곱 번(출 2:4, 2:7, 15:20, 민 12:1, 20:1, 26:59, 신 24:8) 등장하는데 모두 간접하게 언급되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미리암의 이름을 모세와 함께 나란히 거명함으로써 그녀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드러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미 6:4).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여성 예언자였다. 고대 여성들이 대체로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로 소개되는 것에 비해 미리암은 결혼한 여성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예언자로서 큰 역할을 했고, 백성들도 그녀를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존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리암은 어린 남자아이는 모두 몰살당하던 당시 소녀의 몸으로 기지를 발휘해 모세의 생명을 구했고 그를



베르메르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신 예수(1654년 작)'.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에는 늘 여인들이 있었다.

돌보고 키워주었다. 모세에게 끝까지 진리를 일러주고자 노력했다. 뛰어난 용기와 재치로 장차 민족의 구원자가 될 모세의 생명을 구한 것도 모자라 출애굽 시기에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모세와 함께 히브리 백성들의 노예 해방을 이룬 여성이었다.

에스더도 구약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게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하만의 음모로부터 동족(同族)을 구출한 여인이다. 왕의 부름 없이 앞으로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고백이 그녀의 입술에서 나왔다.

주목할 것은 에스더에게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찬양도 찾아볼 수

없다. 에스더의 민족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하는 섭리만 나타나 있을 뿐이다. 에스더는 왕후라는 지위와 부귀를 누리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모든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민족을 구해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여성 리더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간음하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같이 죄를 지은 남자에 대한 말은 일절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성차별이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셨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기적의 자리에는 늘 여인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제자들을 개인교습 시키듯 마리아와 마르다를 무릎 앞에 앉게 하시고 가르치셨다(눅 10:38~42). 특히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라고 말씀하셨다. 한 여인에게 기독교 신앙의 주춧돌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열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진리였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성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부적절하고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여자들도 함께 참여시켰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했다. 막달라 마리아, 조안나, 수산나, 마리아와 마르다,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갈릴리 여인들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도운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았다.

초대교회에서도 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다. 믿음의 여인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대교회는 집을 가졌거나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여인들에 의해서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기 시작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행 12:12~17), 자색옷감 장수 이방여인 루디아의 집(행 16:11~15), 라오디게아에 있는 늪바의 집(골 4:14)이 가정교회로 제공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역했으며(행 1:13, 5:14, 8:3, 9:2, 17:34), 일부 여성 회심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행 17:4, 17:12)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 서신서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바울이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 여성비하 발언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고전 11:3).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전 14:34~35).

그런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



서해안 섬 교회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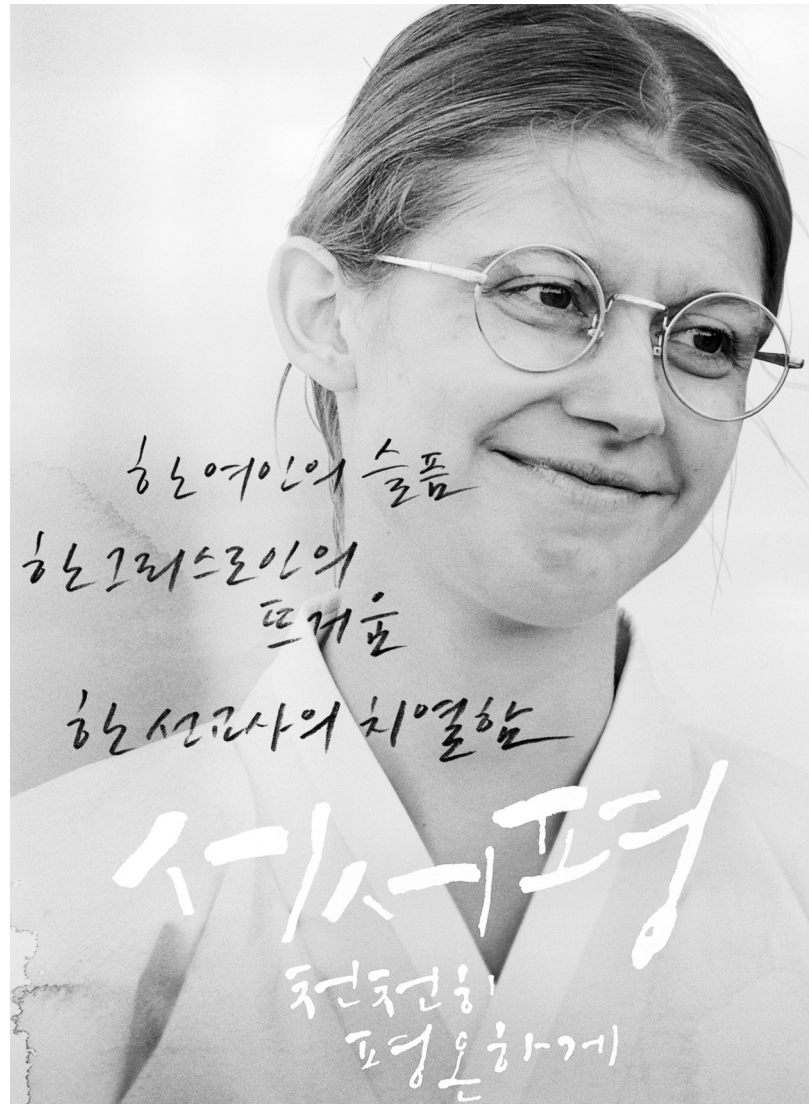
다. 이 편지 내용은 당시 고린도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바울이 했던 권면이다. 오히려 바울의 여성에 대한 평가는 아주 높았다. 그에게는 많은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다. 바울의 최고 서신서라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전달한 인물은 겐그리아교회 지도자로 활동한 여자 안수집사 '뵈뵈'였다. 그녀는 바울의 서신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뵈뵈는 편지를 쓴 바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로마교회에 가서 교인들 앞에서 바울의 서신을 읽고 전했다. 뵈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역자 중 하나였던 브리스길라도 여성이었다.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바울을 후원했다. 신약성경에 여섯 번이나 기록되었을 만큼 이들 부부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신뢰가 돈독했다. 이들 부부는 가정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교사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브리스길라는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을 잘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기에는 그도의 깨우침이 부족했던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실력을 갖춘 여성 지도자였다.

이밖에도 바울은 갈라디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갈 3:28)고 했으며,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칭송했다(롬 16:1-23).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들 중에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과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끈 여성들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유교질서에 억압당하던 조선의 여인들도 설움이 많았다. 남존여비(男尊女卑), 여필종부(女必從夫)로 대표되는 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 당했다. 숨어있는 존재들이었다. 이처럼 억압받고 차별받던 조선의 여성들을 사회로 나오게 한 견인차가 바로 기독교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그 앞에 누구나 동등하다'는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이 역눌린 조선의 여인들에게 해방을 선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일부일처



전라도 일대 나환자와 결인, 고아들의 어머니 '서서평' 선교사.

주의, 개가 허용, 남녀동석 필요성을 인정하며 유교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구한말 여성들에게 기독교는 그야말로 해방의 종교였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에 들어온 여성교사들 덕분이다. 조선 선교 초기에 파송된 미국인 선교사의 60% 이상이 선교사 부인과 독신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남녀의 구분이 엄격했던 조선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고,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고, 전도부인을 양성했다. 순회전도를 다니며 사경회를 이끌었고, 근대식 병원과 학교, 자선기관 등을 세워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와 여성들을 치료하고 보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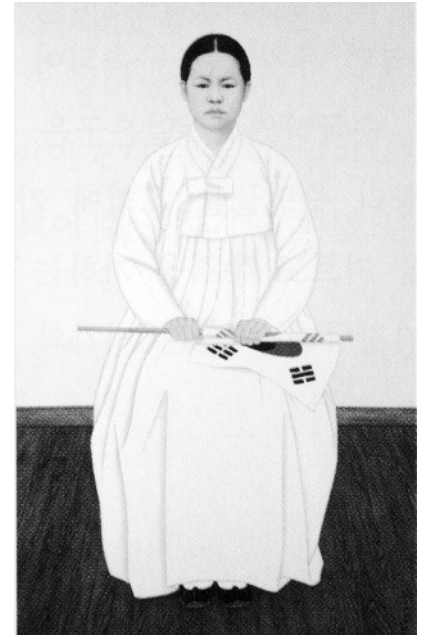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서평(엘리자베스 웨이핑) 선교사다.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일대 나환자들과 결인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자식 삼아 한집에서 같이 살았다. 자신의 주검조차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하고 떠난 작은예수였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이라는 정신으로 뺏속까지 조선인으로 살다간 여선교사였다. 이러한 여성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여성들이 일제강점기 교회 발전과 사회선교, 민족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나라와 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 대표적인 여성이 유관순 열사다. 그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독립운동가다. 3.1독립만세 운동의 열이자 정신 그 자체이다. 유관순 열사는 교회에서 자랐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배웠다. 유관

순이 살았던 천안 지령리에 지령리감리교회(현 매봉교회)가 있는데 그곳이 유관순 열사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였다. 그곳에서 찬송가를 배우고, 어른들이 성경 읽는 것을 보고 흥내 내다 한글을 깨우쳤다. 유관순 열사는 강경, 논산, 공주 지역에서 순회전도를 하던 사애리시(엘리스 햄몬드 샤프) 부인의 눈에 띄었고, 공주영명학교를 거쳐 서울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갔

다. 그곳에서 유관순은 프라이 학당장, 하란사 선생, 박인덕 선생,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 이필주 목사 등의 영향을 받아 민족의식과 신앙심을 고취시켜나갔다. 1919년 서울에서 3.1만세 운동이 터지자 고향 천안으로 내려간 유관순은 여고생의 몸으로 천안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짧은 생이었지만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사랑임을 되새기며 불꽃같이 살았다.

‘서해안 섬 교회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도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교인이 하나도 없던 임자도와 증도에 교회를 개척했다. 신안 지역에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문준경 전도사가 세운 교회와 기도처 11곳이 마중물이었다.

그녀의 순교는 본 회퍼 목사의 죽음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숭고했다. 일제강점기 교회가 강제해산 당하고,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해방이 됐다. 다시 목회를 재개한 기쁨도 잠시 곧바로 한국전쟁이 터졌다. 문준경 전도사는 친일파에서 공산당으로 변모한 무리



천안 만세운동을 이끈 유관순 열사.

에게 체포되어 목포로 끌려갔다. 그녀를 압송하던 인민군들은 목포가 이미 국군에게 탈환된 것을 알고 도망쳤고, 인민군에게 풀려난 문준경 전도사는 곧바로 증도로 내려갔다. 사태가 안정되면 돌아가라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 때문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이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며 증도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공산군에게 곤봉으로 맞아 쓰러졌고, 총으로 확인사살까지 당하며 순교했다. 목포에 있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도로 다시 돌아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독일로 돌아가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 죽은 본 회퍼 목사의 죽음만큼 숭고한 삶이었다.

이밖에도 1920~30년대 금주, 금연, 공장폐지 등의 운동을 주도했던 여성 절제운동의 선구자 손메례, 양반집 부인이었다가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휘장세례(남녀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을 금기시해서 방 가운데 휘장을 치고 구멍을 뚫어 그 사이로 머리를 내밀고 물을 떨어뜨려 세례를 주는 방식)를 받고 전도부인이 되어 교회와 학교를 세웠던 전삼덕, 보호여회와 진명여학교 창설자 여메례, 전주 고아원 설립자 방애인, 개성 전도부인으로 활약하고 3.1만세 시위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고문으로 힘들어하던 유관순을 어머니처럼 위로해주었던 어윤희 등 민족과 교회를 위해 몸 바쳤던 여성들의 활약과 희생으로 한국과 한국 교회는 몰라보게 부흥했다.

바야흐로 여성들의 전성시대다. 사회의 절반, 교회 구성원의 70%가 여성이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 시대 여성들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았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분명히 일어났듯 이 시대 여인들도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집과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여성(잠 14:1),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위로하고,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온 편지

“찬양 속에 천국으로 떠나셨다”

임종 직전 복음 듣고 구원받은 어느 어르신 이야기

병원은 삶과 죽음이 오가는 장소이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하다. 생명이 다하기 직전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향하는 환자들을 보는 큰 은혜의 장이기도 하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서울삼성병원 원목으로 섬기고 있는 김정숙 목사가 임종사역을 마치자마자 느낀 소회를 적어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정숙 목사
(병원선교담당)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창 15:15).

찬송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의 후렴(後敍)과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글을 쓰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병원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된다. 환자들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천국으로 안내하면서 매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본다. 한 영혼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도 본다.

임종의 순간 환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사역은 병원선교의 꽃이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긴 인생에서 경험한 희로애락을 마감하는 시간에 질병과 사투를 벌이며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인간의 무상함이 느껴진다.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 긴박하고 강렬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오늘 있었던 임종사역에서 경험한 은총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글을 쓴다.

“오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박 파트장님은 간간히 전화로 “이 어르신을 만나 달라”고 연락하셨다. 찾아가보니 그 어르신은 중환자 1인실에서 계셨다. 회복에 대한 기대 없이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방문할 때면 꼭 의료진들이 진료를 하거나 삼성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드님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드님은 혹여나 아버지에게 종교적 부담을 드릴까봐 원목의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이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지연되곤 하였다. 병실 분위기에 따라 조용히 나오기



를 여러 번 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 저는 중환자실 어르신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님께 복음을 전해 주세요. 제가 퇴근해서 병실에 와 있는 시간에 맞춰 줄 수 있으신가요?”

그 어르신의 병실에 들러 기도해 드리고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어르신께서 깊은 수면 중이거나 의료진들에 둘러싸여 계셨다. 또다시 복음 전할 기회가 미뤄졌다.

지난 6월 1일이었다. 수원 온누리교회 시니어스쿨 강의를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박 파트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 이 어르신 오늘 넘기기 어렵습니다.”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는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이 어르신은 내 목소리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힘들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지성인일수록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경우가 있지만 더 빠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 어르신이 그랬다. 어르신의 귓가에 다가가 성경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어 드렸다. 그리고 또박 또박 복음, 죽음, 구원에 대해 설명해 드렸다.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축복

“죽음은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돌고 도는 윤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도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육체가 한계를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으로 만들었으니 헌옷과 같은 육체의 옷을 벗어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 받아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천국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본향에서 출생하는 것이 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잘 받아들이시면 하늘의 평화가 임하여서 고통 없이 육의 옷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설명하는 순간 온 가족들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어르신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실 수 있게 천천히 또박 또박 전해 드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 안에 임해 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남은 시간을 인도해 주십시오.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어르신은 복음을 받아 들였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옆으로 돌아봐 주셨다.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었고 심박동도 급박하지는 않았다. 임종까지 시간이 남아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다. 찬송가가 죽음 앞에 계신 분의 영혼을 사로잡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 하리라.”

이처럼 알맞은 찬양이 또 있을까. 죽음 앞에서 찬송은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 어르신은 인연히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다.

육체가 식어가시던 어르신께 평온이 덮이는 것이 느껴졌다. 산소포화도가 70으로 떨어지고, 심박동이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리고 심박동 모니터에 빨간 불이 켜지며 소리를 냈다.

“할렐루야! 찬양 속에 영혼이 천국으로 떠나

셨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 그 고귀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다. 이 고요함, 이 찬란함, 이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다.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낸 육체의 빈 그릇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 보였다. 숨죽이던 가족들은 감사를 드렸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아내는 소망교회 권사님이셨다. 그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리셨을까. 고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전화했던 며느리는 양재 온누리교회 성도였다. 하나님께서는 가족구원을 위한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부족한 나에게 병원사역을 맡기신 이유이기도 하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에는 복음의 능력과 힘이 넘쳐 나고 있었다. 가슴에서는 환희와 몽글한 감사가 넘쳐났다. 온 몸에 느껴지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신 은혜와 여운이 지금도 남아 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다. 반드시 누려야 할 천국의 은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됨이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이 어르신은 천국에서 새로운 출생을 하셨다.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셨다.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 나라 입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으로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호스피스 봉사자 모집
황인경 팀장 010-8367-8835



전문가 기고_ 부채문제와 교회의 역할

빚 안 지고는 못산다? 빚지고 못 산다!

부채가 개인의 삶과 사회 파괴 ... 노력해서 줄여야만 한다

요즘은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꿈 같은 소리라고 한다. 세대를 막론하고 빚 안 지고는 못사는 세태를 꼬집는 말이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학자금 대출을 받고, 결혼해서 독립하려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차 사고, 집 사고, 자녀교육 시키다 보면 빚이 쌓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쌓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57조에 달한다. 빚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과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앞장서서 돈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빚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사회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오종규 법무사가 부채문제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오종규 법무사
사회선교부 사회책임팀
정언법무사사무소 대표

어린 시절 나는 부유하게 자라지 못했다. 온누리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동네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남들이 모르는 소소한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 오늘날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해 불안할 때가 있다. 때로는 어린 시절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다.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20년 전 혹은 30년 전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성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대학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학생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어마어마한 전세값 앞에서 고민하는 신혼부부들, 이제는 경제력 싸움이 되어 버린 자녀교육문제로 씨름하는 부모들, 내 집 마련, 안정적인 노후준비 등 우리는 한시도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

기독교인들도 돈에 자유롭지 못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거나 무관심하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 또는 일정한 헌금을 하는 것으로 돈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치부해 버리기 일쑤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소비만이 미덕

’이고, ‘좋은 차’ 또는 ‘좋은 집’ 있어야 멋진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부채를 짊어지고서라도 소비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리고 있다. 우리는 이미 소비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57조 3,000억 원으로 약 400조원이 되는 국가예산대비 3배가 넘었다. 부채는 더 이상 개인과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부채문제와 교회의 역할

부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부채를 단순히 타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부채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야 한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돈도 크리스천들이 관리해야 할 영역임을 알려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물질에는 관심이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단순히 아끼고 저축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에 기초한 재정, 부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미 부채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부채자들을 돕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신용불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개인회생, 파산신청자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개인회생, 파산신청자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연령이 청년층이다. 청년들의 부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창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힘들니 대출금을

갚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는 청년들도 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부채라는 짐까지 진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에서 출발한 부채는 한 가정의 탄생을 가로 막는다. 부채는 개인의 삶, 청년들의 꿈, 가정의 평화, 국가의 미래를 빠르게 침몰시키고 있다.

부채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

부채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교회와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정립해야 한다. 더불어 재정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녀교육, 결혼, 내 집 마련, 노후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야 한다.

이미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분명한 해결이 필요하다. 부채에 대한 우선순위를 나누어 변제하고, 더 이상 부채가 발생하지 않게 신용카드사용과 소비습관을 관리해야 한다. 부채관리와 소비습관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전문가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절이 어려운 심각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 즉각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같은 제도를 피하지 않아야 한다. 체면을 살린다고 미루면 미룰수록 깊은 부채에 빠지게 된다.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부채가 이루어진다.

재정전문가에 의한 상담->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부채구제->법원을 통한 개인회생->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제도

‘부채탈출119’와 ‘긴급구조자금’

온누리교회는 일찍부터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재정관리 강의를 추가하고, 성도들의 의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선교부 사회책임팀에서는 청장년들의 실제적인 부채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부채탈출119’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장년들 각자의 처해있는 형편에 따라 단순한 재무상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구조 제도, 법적인 구제 방법인 개인회생, 파산제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없어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해서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금까지 대여 금원 전부가 회수되었다. 2015년도부터 부채탈출119를 통해 약 200명의 청장년들이 부채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재정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많은 부채로 힘들어 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까지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구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너희 손을 펴라”고 당부했다. 부디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전해지고, 개인과 사회가 변화되며,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시(娼)집 가다’라고 해요. 여자(女)가 생각(思)을 매우 많이 해야 하는 곳이 시월드라면, 남자들도 신중하게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처(妻)월드’예요. 남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장가(丈家)간다고 하는데 장가란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丈人)과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丈母)가 살고 계신 집을 말해요.

로마가톨릭 초대 교황은 로마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뒤를 이어 수많은 교황들이 총각 교황인 반면 베드로는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열두 사도는 물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유다까지도 대부분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공관복음 곳곳에 등장하기도 해요.

“그들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종들기 시작했습니다”(막 1:29-31).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직 총각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같이 말이죠. 복음서에서는 이 집을 ‘베드로의 집’ (마 8:14), ‘시몬과 안드레의 집’ (막 1:29), ‘시몬의 집’ (눅 4:38)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장모(과부)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다소 다혈질이었을망정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장모에게 각별하고 듬직한 사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요.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보고 자기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사위를 뒀어 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정을 지탱해왔던 베드로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장모는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어요. 장모는 자신을 봉양해주는 사위를 뒀어낸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밉고 괴심했을까요. 그 미워하는 감정이 가슴에 단단히 차오르고 울화를 참는 일이 반복되다가 급기야 스트레스성 ‘화병’(火病)에 걸려 버렸어요. 딸의 인생과 자신의 노후를 망쳐버린 사위와 예수란 작자에 대한 분노가 온몸에 뜨거운 고열 증

세로 나타나 열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열병으로 앓아누운 장모를 간병하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장 확실한 처방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기에 이르러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장모는 자리에 누워있었어요(막 1:30). 어쩌면 그 웬수(?)가 왔다는 소리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씩씩거리며 누워있었을 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막 1:31). 병든 베드로의 장모 손을 잡아 일으킨 예수님의 손은 태초에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손’이자, 모든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의 손’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손’이에요.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고귀한 ‘구원의 손’이에요. 그 손이 베드로 장모의 손에 닿는 순간 울화로 꽉 막혀 있었던 그녀의 가슴에 평강의 물결이 밀려들어 갔어요. 그렇게 열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일어난 그녀가 곧바로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시종드는 것이었어요. 잠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종이 되어 섬기겠다는 거였어요. 한때 미움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평생 종으로서 섬기겠다는 베드로의 장모는 완전히 다른 여인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후에 초대교회 여선교

예수님의 손

회 전체를 이끌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마침내 오순절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자들(행 1:14)의 만언니이자 초대교회 마리아행전의 원조 걸 크루쉬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베드로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사실 오늘날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약성경에서는 이미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들고 일어날 것이니 자기 집안사람들이 자기 원수가 될 것”(미 7:6)이라고 경고했어요. 부모자식, 형제자매, 고부·장사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은 주님이 ‘회복의 손’으로 굳게 잡아 일으켜 주실 때 해결될 수 있어요. 그 회복의 실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모시고 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먼저 믿은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듯 가족 구성원을 잘 섬기고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손이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을까요? 베드로 장모에게 일어났던 것처럼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아무도 알려주는 않는 답변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됩니다〉
최영기 저 / 두란노 / 13,000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문제라고 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묻기 두려운 내용들이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궁금하지만 하지 않는 질문들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가요?”

“하나님께 섬설할 때는 어떻게 하죠?”

목회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목회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설교에 대한 고민에 대해 속 시원히 답해주는 책이 출판됐다. 최영기 목사가 휴스턴 서교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연재했던 칼럼을 엮어 책으로 출판했다. 최 목사가 20년 동안 쓴 칼럼은 900개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150개를 이 책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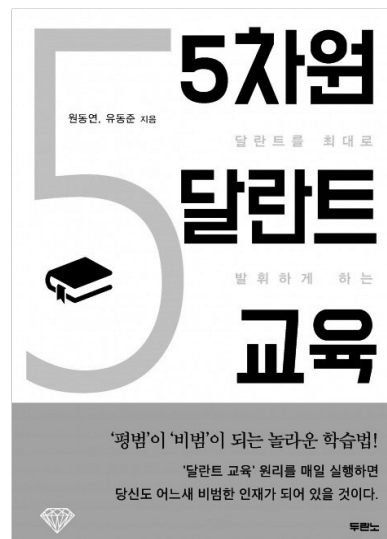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한 ‘간증하는 법’, ‘올바른 예배 용어’, ‘술, 담배를 안해야 하는 이유’ 등 다양한 주제의 칼럼들도 있다. 모태신앙인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도 있다. ‘모태신앙을 싫어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도 있다.

“예외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모태신앙을 갖고 자란 사람들은 연륜에 비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새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성숙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그들도 영적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태신앙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진 모태신앙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쓴 ‘다른 교인 받지 않기’, ‘나는 초원지기 목사’, ‘재미없는 목사’ 등의 칼럼도 있다.

이 책은 목회자들에게는 성도와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성도들에게는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행복한 교회와 신앙생활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크리스천에게 꼭 필요한 기술 배우기



〈5차원 달란트 교육〉
원동현, 유동준 저 / 두란노 / 13,000원

성경공부에 대한 열정은 뜨거운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는 드물다. 왜 성도들이 말씀 훈련을 받았어도 쉽게 변화하지 못할까?

〈5차원 달란트 교육〉은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

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닫혀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 잘못된 의식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으로 ‘5차원 달란트 교육’을 소개했다. 5차원 달란트 교육은 5가지 영역(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이 단면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개발되도록 돕는 방법이다. 지력-성경읽기, 심력-기도하기, 체력-운동, 자기관리력-일기쓰기, 인간관계력-편지쓰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커리큘럼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길 또한 제시했다. 비뚤어진 인식을 바로 잡고, 정보의 바다에서 양질의 정보를 구분하고,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으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잘못된 인식으로 성경을 왜곡할 일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더 깊은 성경공부를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솔루션도 제시했다.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달란트 교육’ 원리를 매일 실행하다보면 어느새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원하는 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필독서다.

혈관종 앓는 크리스틴을 도와주세요

수술 및 채류비용 1,300만 원, 통역 절실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혈관종을 앓고 있는 크리스틴(16세 인도네시아)을 후원해줄 전사를 찾고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와 크리스틴은 2014년 인도네시아 아웃리치에서 만났다. 당시 크리스틴은 인도네시아 서부의 한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혈관종 때문에 오른손이 크게 부풀어 있었다. 통증 때문에 학교에 갈 수조차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크리스틴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아웃리치팀이 주축이 되어 수술을 받도록 도와줬다. 그렇게 2015년 부종을 덜어내고, 새끼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2년 뒤에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올해가 딱 2년째다. 다시 한 번 부종을 덜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7월 4일 입국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 수술비용과 채류비용까지 약 1,300만원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와 통역 등의 후원도 절실하다.

‘인도네시아 아웃리치팀’의 김지원 자매는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이



크리스틴이 불편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크리스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까지 흘러갈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문의: 010-7127-191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3차 장로아카데미 종강

29명 수료, 참가자 전원 성경1독

3차 장로 아카데미가 종강했다. 지난 1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3차 장로아카데미 종강예배를 드렸다. 종강예배는 유재홍 장로의 찬양, 이장로 장로의 기도, 박종길 목사의 말씀, 수료식, 조별 나눔, 축복과 선물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박목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시키는 은혜가 장로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장로아카데미를 수료하는 장로들을 축복했다.

12주 동안 진행된 장로아카데미에서는 29명의 장로들이 수료했다.

11명이 개근상, 참가자 모두가 성경1독 통독상을 수상했다.

장로아카데미 총무 홍성호 장로는 “장로아카데미가 세 번째 진행되면서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며 “깊은 나눔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개근상을 수상한 김인화 장로는 “성경통독을 하면서 처음 장로 장립 받았을 때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했다”며 수료 소감을 밝혔다.

장로아카데미는 12주 동안 장로들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에 힘쓰는 프로그램이다. 8월 29일 4차 장로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은퇴 이후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은빛날개 세미나 6월 30일 오후 2시

“은퇴준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은퇴 이후 삶을 계획 중인 성도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사회선교부가 주최하는 은빛날개 세미나가 6월 30일부터 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두려운 성도들이 대상이다. 문의: 010-7442-0192

칼럼

은빛날개를 펼치라!



노치형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 소속된 ‘은빛날개 팀’에서 오랜만에 ‘은빛날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은빛’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기를 생각한다. 하지만 ‘은빛날개 세미나’는 노년들만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다. 은퇴를 경험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다. 은퇴는 노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퇴백’이라는 말이 있다. 슬픈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십대에 퇴직한 백수’라는 의미다. 체육계통에 종사했던 청년들도 30대가 되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은퇴는 노년의 이야기가 아니다. 20대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은퇴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은퇴가 없다고 말하는 자영업이나 그 외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리스도인이자 은퇴 이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나 자신이 먼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은빛날개 세미나’에 오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은퇴를 경험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인 모든 분들을 초청한다. 은퇴 이후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기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두란노서원 QT축제 ‘큐티한 가족’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창간 30주년을 맞아 QT축제 ‘큐티한 가족’을 개최한다. 큐티한 가족은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 가족을 위한 세미나(7월 15일, 경기도 용인)와 강원도 춘천지역을 위한 오픈 세미나(7월 16일, 춘천 천전교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두란노서원 전문 QT강사와 청소년, 어린이 등 각 QT파트 편집장들이 함께한다. 두란노서원 직원들은 자비방으로 축제에 참석해 초대된 이들을 섬긴다. 참가신청은 7월 5일까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2-2078-3252

러브소나타 예배드린다

6월 28일 서빙고 본당 수요목양예배

6월 28일 오후 7시 30분 수요목양예배는 ‘러브소나타 예배’로 드린다.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대상이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러브소나타에 대한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 실행위원장 호소이 마코토 목사도 참석한다.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일본 현지 실행위원회는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 전초전으로 지난 3일과 4일 아사쿠사바시교회와 구라시키성약그리스도교회에서 ‘러브소나타 동경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를 초청

한 이번 궐기대회는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를 알리고,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히사다 쿠미코 성도(쿠온그리스도교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러브소나타 대회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초대해서 진정한 주인을 알고 싶다”고 했다.

네모토 메구미 자매(동경호프체플)는 “감동적인 플루트 연주를 들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6월 25일 (주일) / 시간: 오후 3시 30분 / 장소: 양재 드림홀 / 대상: 5월 7일~6월 10일 등록 성도

강남A 박선희 박성주 박준우 박혜민 윤효정 이승철 이승현 이유경 이재윤 이현정	이호정 조주태 최정은	진경희 한영선 허 훈	강남D 김대은 오병주 이지은 임혜원	분당A 김지은 정윤조	오태동 조연실	홍미숙	김규리 김지인 남자영 박지윤 박찬완 신유리 송동욱 윤치원 이리나 정재훈	송파 강성은 김경현 김옥이 서현수 이수정 양재 강영순 김능자	김범환 김정은 명지혜 박옥례 박지훈 백우용 서정태 이부순 이현정 정운하	푸른누리 강노아 김관혁 김혜정 문대석 이동민 이지수 이진혁 이형민 정두영
강남B 김미향 김명자 서동준 심광보 안수연 이수현 이현석	강남C 김명자 서동준 안경실 전영도	과천의왕 심은정 조인정	분당B 김성애 남정현 노명숙 박재희	산본안산 김희광 이성숙	서초B 이 철	서초A 류경동 박기영 이철우 최영희 한금숙 황경실	서초C 서초D			



동경 기 · 도 · 제 · 목

- 6월 19일(월) 러브소나타 모든 진행 과정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 6월 20일(화) 가스펠나이트 주강사인 사토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 6월 21일(수) 복음의 능력으로 일본 교회에 많은 헌신자들이 생겨나도록
- 6월 22일(목) 이재훈 목사님과 강사, 출연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 6월 23일(금) 스테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열정, 냉철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 6월 24일(토) 아웃리치 모든 팀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영적대각성의 시간 되도록
- 6월 25일(주일) 모든 날씨, 교통, 환경, 상황을 주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시길

참가자 추가 모집 A팀 40명(7월 24일 ~ 27일, 109만원) 문의: 02-749-1149



2000선교가 제안하는 ‘해외 아웃리치 안전지침’

위기의 순간 이렇게 행동하세요!

올 여름에도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해외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여름 아웃리치 시즌을 앞두고 2000선교본부가 지난 13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해외 아웃리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외 아웃리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실제적 대처법을 가르쳐주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안전수칙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2000선교본부가 제안하는 해외 아웃리치 안전교육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편집자 주

빠트리기 쉬운 안전수칙

- 1) 가족과 친지에게 여행일정과 동행자 연락처를 알려주고, 현재 위치를 수시로 알려준다.
- 2) 해외에서는 여권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한국인의 여권은 종종 절대대상이 된다.
- 3) 혼자서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아웃리치 그룹에서 따로 떨어져 혼자 있지 않도록 한다.
- 4) 현지문화를 최대한 존중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아웃리치를 준비한다. 독특한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현지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5) 무료 음료 제공, 여행 가이드 자처, 한국에 관심이 많으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피한다. 모르는 사람이 수화물 운반을 부탁하는 것은 마약 등을 운반시키려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거절한다.

분실물이 발생 때

- 1) **짐:** 수화물로 맡겼던 짐을 분실했을 때는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다.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진다. 여행 중에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을 자세히 적어 두고 도난신고서를 발급받고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한다.
- 2) **여권:**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증명서를 만든다.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분실증명서와 사진 2장, 여권번호와 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여행자 증명을 발급받는다. 여행 전에 여권 복사본을 마련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 3) **항공권:** 해당 항공사 사무실에 신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분실신고를 할 때는 항공사명, 항공권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 항공권 사면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 등의 연락처도 메모해 두도록 한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 1) **질병**
대부분 여행보험은 여행 중 입은 상해의 경우 치료비 한도가 3백만 원으로(사망 시 최고 보상 한도 5천만 원, 가입 시) 귀국 후 보상비를 지급받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출해야 한다. 귀국 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 소유의 통장 계좌로 송금된다. 보험 처리가 필요 하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의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명세서,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2) **교통사고**
언어에 자신이 없다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은 후 사고의 책임여부를 따진다. 사고 즉시 현지 한국공관이나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위축된 행동이나 “I am Sorry” 등의 표현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3) **길을 잃었을 때**
해외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 공공기관이나 호텔에 문의하고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오면 된다. 미리 투숙 호텔이나 숙소의 전화번호, 주소, 약도 등을 현지어로 적어서 소지하는 것이 좋다. 또 나쁜 택시기사를 만나 목적지 이외 지역으로 주행하거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면 경찰을 불러 경고해야 한다.
- 4) **치안사고, 재해 예방**
외국에서의 치안사고는 자신의 실수 여부를 떠나 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야간에 개인행동을 피하고 우범지대나 향락가를 배회하는 등 범죄 유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분명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상황이 확대되기 전에 현지 한국공관이나 기관에 연락하는 것도 지혜롭다 하겠다.
- 5) **치안 사고 예방법**
공항에서 자신의 짐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자리를 뜰 때에는 동행자에게 봐달라고 부탁한다. 국제공항에는 소매치기나 낚치기, 들치기 등 불량배들이 낚선 외국인을 노리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남이 보는 앞에서 현금을 세거나 보이지 말고, 숙소에서 수숙할 때 짐은 반드시 본인 앞에 놓아야 한다.

보안지역에서 지켜야 할 수칙

선교사와 연락 전 2000선교본부(02-795-9085)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 1) 현지에서 대화할 때에는 선교사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교사를 부르는 호칭은 “실명”+“약속된 호칭(사장님)”등으로 부른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종교적 용어 사용을 피한다.
- 2) 아웃리치 준비과정에서 보안지역으로 전화와 메일 또는 우편으로 소식을 보낼 경우에도 선교용어 사용을 피한다.
- 3) 선교사 사진 공유 금지, 보안지역 선교사의 얼굴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하지 않는다.
- 4) 보안적인 이야기는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선교사와 통화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그널(Signal) 메신저 등 보안채팅 앱의 음성통화기능, 카카오톡 전화, 양방향 070 전화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통화로 보안성을 높인다.
- 5) 하나님을 하나님, 1님 등으로 쓴다든가 선교를 선교로 쓴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방향 보안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한다. 프로톤메일(protonmail) 계정을 만들어 선교사와 대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2000선교본부는 정책적으로 선교사들에게 프로톤메일을 권장하고 있다.
- 6) 일반전화와 팩스, 음성통화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휴대폰은 도청을 조심해야 한다. 선교지와 일반전화를 사용한 통화는 모든 대화가 감시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가능한 짧게 한다. 선교사, Missionary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종교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사와 연락할 때 선교사의 실명과 약속된 호칭을 사용한다. 선교지 상황에 합당한 직함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 7) 아웃리치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타 단체 선교사 신상과 사역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 선교사의 사역이 노출되거나 대화 중인 선교사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 보안지역

- a. 기독교에 민감하거나 적대적인 종교, 문화의 국가들 혹은 법적으로 선교를 금지하는 국가들 - 이슬람교권, 불교권, 힌두권
- b. 현존하는 공산주의 국가 - 중국, 북한, 라오스, 베트남, 쿠바
- c.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했던 적이 있는 국가들(잠재적 위험) - 남예멘, 루마니아, 모잠비크, 몽골, 베냉, 불가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캄보디아, 콩고, 폴란드, 헝가리

* 선교 보안을 지켜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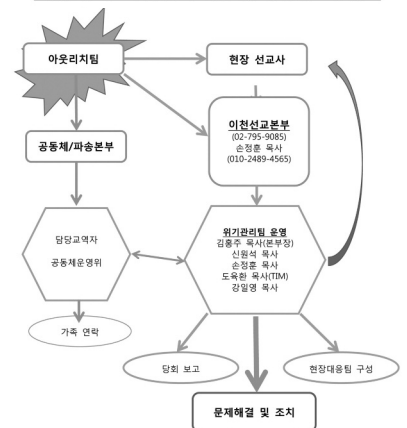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의 보안이 무너지면 선교사의 사역은 물론 연결된 모든 현지인과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안전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 보안지역 선교사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수한 위기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및 주의 사항

1) 위기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취조를 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복음전파가 불법으로 지정된 나라에서는 현지 경찰에 의해서도 취조를 당할 수 있고, 테러, 무장단체에 의해서도 취조를 당할 수 있다. 이때 안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골라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대응함으로써 질문의 핵심을 회피할 수도 있다. 정치적 불안이나 소요발생: 완전한 무정부상태가 아니라면 소요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신속하게 확대되지만 신속하게 종료된다.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 도시가스, 전기를 잠그고 출입문을 개방해 놓는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 된다. 머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이동한다.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변화가에서 이탈해 공터, 학교, 공원 등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아웃리치 비상연락 및 위기대응 체계도



세레간증



/ 정영자 성도(용산공동체)

어려서부터 어른들의 신앙을 보며 자랐다.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외할머니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셨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아낌없이 보여주셨다. 일본의 첫 번째 기독교 학교를 다니셨던 아버지는 영락교회 장로셨다. 자연히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면서 신앙생활에 관심이 줄어들었다. 나의 전공, 교편생활, 외교관의 처, 어머니역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러다가 종교생활을 하게 되었다. 복음이 없는 헛된 종교였다. 장성한 세 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며 말씀도 읽어주고 간증도 나눴지만 나의 잘못된 종교생활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왔다. 그러던 지난 여름, 말기 암 투병 중이던 둘째 딸과 함께 있기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딸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다. 딸의 치유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몇 달 동안 다녔다. 딸에게 끝까지 여호와를 붙잡자고 했다. 그런데 더 이상 치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딸은 절망하거나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긴 말이 ‘아바’였다. 나는 딸이 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랑과 평강을 가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자식 잃은 아픔을 달래는데 많은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의지하고 싶어 큰딸을 따라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찬송가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좋았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거룩한 분위기와 행복함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 <생명의 삶>을 읽고 CGNTV를 애청하게 되었다. 나의 자만을 돌아보고 회개했다. 수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완고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세례를 받고 싶었다. 요즘은 큰딸과 OBC 요한복음과정을 듣고 있다. 나의 변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 딸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외할머니가 뿌리셨던 씨앗이 싹튼 것이다.

가족구원을 위한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나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과 손주들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K.S 선교사(동아시아A국)

내가 처음 선교병원의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소원했던 세 가지 꿈이 있다. 경쟁력 있는 병원, 복음 전하는 병원, 자립하는 병원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내 기대와 현실은 달랐다. 매달 적자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혈액투석 치료의 보험급여 결정을 받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다. ‘로비를 좀 해야 하나’ 고민도 많았고, 우리 병원을 시샘하고 견제하는 다른 병원들의 방해도 있었다.

로비를 할 수도 있었지만 직원들과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합심했다. 그런데 1차 입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참 혼란스러웠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길로 가려는 선교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나 싶었다.

다른 병원들이 보험적용이 되면서 그나마 오던 투석환자들이 줄어들었다. 그 힘든 와중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기존 입찰 결과가 취소되고 2차 입찰을 하게 되었다. 지난 봄부터 우리 병원을 포함한 7개 병원이 투석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었다. 보험금을 받고 무료로 혈액투석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혈액투석을 하는데 대략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은 차액을

하나님의 반전

받거나 값이 싼 재료를 쓴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무료로 투석을 하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도 보험지원이 도입되기 전보다 훨씬 적은 재정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보험치료가 결정된 날 H교회 담임목사님과 선교담당 장로님을 포함해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다. A병원은 H교회에서 8년 전 지은 복지원에서 시작되었기에 H교회는 정말 중요한 동역자다. H교회에서 후원을 약속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동역하기로 했다.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주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과 후원자들 덕분에 병원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다.

이제 보험급여를 받고, 새로운 진료원장님도 오셔서 외래진료를 시작하려 한다. 이를 위한 임상병리 검사실과 엘리베이터 등 필요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 혈액검사는 병원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혈액검사실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 기도편지에는 혈액검사실과 외래가 잘 준비되었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OBC 온비아 갈라디아서 과정 수료 간증



/ 조재관 성도(중종로공동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 내 마음과 몸은 정죄의식과 병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그런 내가 복음을 접하면서 정죄의식에서 풀려났다. 한없이 어둡던 내가 웃음을 되찾았다. 그러나 당시 나는 원죄(原罪)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해서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 같았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의 얇은 성경적 지식의 한계를 느꼈다. 이신칭의에 대해 잘 몰랐고, 계속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지체들의 드러난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나의 바닥이 드러났다.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런 상태는 결혼을 하고도 변함이 없었다.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정죄감 때문에도 힘들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편안에 위로받을 때가 많았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의 빚 문제로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으며 은혜를 갈구하게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도하게 되었다. 온누리 BEE 아카데미 갈라디아서 공부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밟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깨달았다. 이제는 배운 대로 살고 싶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성도와의 교제 등 믿음생활에서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도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 5:6).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늘 인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OBC 성경통독 수료 간증



/ 윤인숙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말씀이 꿀보다 달다

나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교회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말씀과 기도로 섬겼다. 내 스스로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 일로 교회와 교회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의 영혼은 상처와 아픔으로 피폐해졌다. 내 신앙이 무기력해지기까지 했다. 어떠한 사람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했던 기도와 말씀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견잡을 수 없는 아픔이 엄습해 왔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원과 부흥집회를 찾아 헤맸다. 그럼에도 내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부어주셨다. 너무나 보편적인 진리였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지식이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길은 기도원과 골방이 아니라 말씀임을 깨달았다. 나는 성경통독반에 등록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가슴 깊이 경험했다.

구속역사의 맥을 짚어가며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역사였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뜨였다. 또한 심판과 회개, 회개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되었다.

구속역사적인 흐름으로 나의 정체성과 재림관이 확립되었다. 나라와 민족, 열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도 주셨다.

성경통독 시간이 매일 기다려진다. 언약의 계승자, 약속의 성취자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내년에도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가 되고 실체가 되기까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여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밈이나 부족함 없이 명쾌하게 풀어주신 권오향 목사님과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김해경 전도사님, 스태프들께 감사 드린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다.

장로칼럼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김 온누리 장로
(동아시아B국 선교사)

장로가 된 지는 10년이 넘었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나간 지는 8년이 지났다. 오랜만에 장로수련회 참석하려니 낯설고 어색했다. 그래도 이번 장로수련회 주제가 ‘선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기

때문에 현역 장로 선교사인 나에게는 안정맞춤이었다. 이번 장로수련회는 온누리교회 선교를 듣고, 배우고, 응원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온 선교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선교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수련회였다. 선배 장로님들이 선교사로 살아오신 삶과 선교사들을 돕는 장로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의 살아있는 선교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해외선교, 이주민선교, 사회선교에 대해 분임 토의를 할 때였다. 선교사인 나보다 더 뜨겁고 열심히 토의하는 동료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온누리교회 선교 실체를 보는 현상이었다.

“장로 먼저 선교를 구체적으로 배우자.”

“장로들이 선교의 동력이 되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로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멈추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느꼈다. 목요선교기도모임, 와이미션(Why Mission), 하우미션(How Mission)에 적극 참여하기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나왔다. 아웃리치의 개념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선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단기선교(아웃리치)를 위해 공

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지속적 관계를 이어나가고, 순모임 때마다 기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 1회 순별로 목요기도모임 참여하기, 계획적 선교를 위해 연초부터 아웃리치 준비하기, 전문성 있는 소규모 아웃리치 팀 구성하기,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재능으로 선교지 섬기기, 선교지 순회방문을 통해 선교사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살피기, 국내선교 역사기행을 통해 선교마인드 함양하기, 이주민선교를 배우기 위해 M센터 사역에 적극 참여하기, 1다락방 1사역 확대하기 등 매우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선교에 대한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간결하고도 확실한 설명에 탄성을 내질렀다. 가는 선교(해외선교)와 있는 자들을 위한 선교(이주민선교),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참여선교(사회선교)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이 선교의 당위성과 영감을 받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번 장로수련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하나하나 실천된다면 아름다운 선교적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어질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이다. 온누리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장로님들과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면서 나도 재결단을 하게 되었다. 바울 선교사가 힘을 다해 수고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장로수련회에서 받은 감동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나는 다시 선교지로 발걸음을 돌린다.

***김 온누리 장로는 현역 선교사입니다. 보안 문제로 가명을 사용하였고, 사진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권사칼럼

그 따뜻함이



권인숙 권사
(북누리공동체)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나는 사춘기 시절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갔다. 교회 분위기가 너

무 좋았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관심이 생겼는데 함께 갔던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나 혼자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수록 처음 느꼈던 분위기와 달랐다. 겉소하지 못하고 화려한 이미지가 강했다. 조금씩 실망감을 느꼈다. 결국 나의 생각과 다른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목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당시에는 선교사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경청했다. 어떤 일인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은 듣고 싶었다. 반짝이는 눈으로 설교를 들었다. 선교사님의 말씀은 마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설교가 끝나고 주변 사람들과 손을 잡고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했다. 한창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사모님이셨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 옆자리에 오셨는지 깜짝 놀랐다. 진심

을 다해 잡아주신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마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이었던 것 같다.

결혼하기 전에는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우연한 기회에 하용조 목사님의 주례별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때 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숙시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 온누리교회로 갈 거라고 다짐했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는 나에게 매년 영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었다. 설교를 듣고 나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영적회복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나의 가슴 속에 박혀 있다. 그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보이는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싶었다.

그 뒤로 개척교회를 섬기다 12년 만에 온누리교회를 오게 되었다. 온누리교회는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었다. 그 따뜻함이 내가 사춘기 시절 처음 느꼈던 교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나는 지금 북누리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내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가족 같은 공동체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신앙에세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용성 목사
(양천공동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다. 10월 26일이 가을소풍 날이었다. 소풍, 그 시절을 살았던 어린이라면 예외 없이 가장 큰 설렘을 느꼈던 단어가 아니었던가? 일주일

전부터 밤잠을 설친 소풍날 아침이었다. 가난한 시절, 나는 엄마가 싸주신 김밥, 사이다 한 병, 삶은 계란에 이미 세상을 다 가진 아이였다. 그런 나의 동심에 비수를 쏘는 비보가 있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따른 소풍취소 소식이었다. 우리는 모두 교실 뒤 연못에서 수양버들을 그늘삼아 눈물의 김밥과 사이다로 가시지 않는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그날 오후였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점심이 지나 삼삼오오 교문 밖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큰일이 났는지 아

이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 무리 옆에는 요란한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우리 반 담임 김영환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타고 있었다. 김영환 선생님의 오른쪽 다리가 찢어져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었다. 급하게 붕대를 감고 차에 올라 타셨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하는 사이 김영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건은 이랬다. 우리학교 정문에 잉어가 살 만큼 큰 연못이 있었고,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꽤 높은 다리가 있었다. 다리 난간에는 수도 없이 많은 뾰족 모양의 철근들이 솟아있었다. 절대로 올라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런데 1학년 여자 아이가 어떻게 그 아래를 내려갔는지 연못에 빠진 것이다. 담임인 김영환 선생님이 다리 위를 지나가시다 허우적대는 아이를 보고 지체 없이 뛰어내렸다. 얼마나 급하게 뛰어내리셨는지 뾰족 창살에 자신의 허벅지가 찢겨 나갔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허벅지는 15센티 이상 찢어졌다고 했다. 선생님은 자신의 허벅지가 뾰족 창살에 걸려 찢어진 줄도 모르고 아이를 다리 위로 끌어올리셨다. 아이를 연못에서 구출하신 선생님은 바로 정신을 잃으셨다. 구급차에 실려 가며 가까스로 정신이 든 선생님이 외치는 한 마디.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겨서 고통이 일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일면식도 없는 이름 모를 제자를 걱정하는 한마디였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지금도 그 목소리가 또렷하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셨는데 아이인 내 눈에 도 상남자 중 상남자요, 멋쟁이요, 참 교사요, 참 리더였다. 내 영혼에 깊은 도전과 삶의 방향성을 심어준 가장 유서 깊은 기억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실 때 계산을 두드리셨을까. 성부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등 떠밀려서 내려오셨을까. 이 고비만 넘기면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만물이 그 발아래 복종케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를 야망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 주셨을까. 나는 만 가지 죄를 지었고, 여전히 내 나이만큼이나 숙성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셈하신다면 버릴 이유가 만 가지는 족히 넘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나 같은 죄인보다 소중하지 않다. 이 사랑은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경이로운 사랑이다.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을 중보하고 섬기며 물어봐야 할 질문이다.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뎀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전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스마트사역팀 동역자 모집

분야: 스토리작가, 웹기획, UI/UX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퍼블리싱, 웹프로그래밍,
래밍, 앱프로그래밍

문의: onnurismart@gmail.com

CMN 드림팀 여름 아웃리치 모집

일정: 8월 12일~18일(스리랑카 해튼)

모집: 내과, 가정의학과, 파부과, 치과

비용: 160만원

문의: 우승엽(010-4230-1474)

CMN BEE팀 여름 아웃리치 모집

일시: 8월 24일~27일

장소: 제주도 보목동 및 한림읍 월령교회

대상: 의료, 미용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문의: 김선아(010-6773-2136)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스타트리)

돌봄교사 채용 공고

분야: 돌봄교사(다문화 및 외국인 초·중·등
생, 학습 및 생활지도)

모집: 6월 30일까지

문의: 이경숙 전도사(010-5034-0092)

OEM한국어교실 봉사자(교사)모집

날짜: 매 주 토요일(제철방학 있음)

서류: 간단한 자기소개와 신앙간증문

자격: 온누리동독교인, 일대일 수요자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사이닝 글로리 지원자 모집

일정: 7/2(주일)-5일(수)

장소: 파주술수양관

접수: 아이스쿨, 목회지원실, 대학청년부

문의: 02-3215-3744

CGNTV 세라핌 합창단 모집

오디션: 7월 2일 2시(자유곡1곡, 악보지참)

장소: Act29홀(신관 카페내)

대상: 초등학교 2학년 이상

문의: 김경은(010-5226-7354)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

임 살롱기도회

일시: 매 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 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양재 본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호수요양병원 4층

두란노서원 시스템팀 채용 공고

모집: 프로그래머(1명)

경력: 신입 또는 2년 이내 경력자 우대

자격: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경

험자 우대(넷넷(net), C#, ASP, MS-SQL)

마감: 6월 23일(금)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두란노서원 고객센터1팀 채용 공고

모집: 텔레마케터(1명)

경력: 신입

마감: 6월 26일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KNOCK

노커스 라이크 영상 나눔



차세대를 위한 여름사역을 앞두고, 홍보영상이 절실한 교회들!
교회와 공동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제작 노하우를 나눕니다.



노커스라이크
영상나눔프로젝트의 서막 영상보기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gntv.knock

노커스라이크 영상 나눔 하나. 뉴비전여름캠프 홍보영상 편

1



노커스라이크 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자립교회 연합 사역단체 뉴비전코리아>
청소녀를 위한 무료 여름캠프를 준비하며 뉴비전코리아와
CGNTV 노크팀이 함께 만든 홍보영상을 공개합니다

6월 17일 오픈

* 여러분의 좋아요, 공유가 뉴비전여름캠프에 큰 힘이 됩니다

노커스라이크 영상 나눔 둘. 교회 영상 만들기 노하우 편

2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영상 제작 노하우!
촬영기법, 조명 세팅, 동시 녹음 등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공동체, 순 홍보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6월 24일 오픈

* 여러 교회, 단체의 미디어 사역에 도움이 되길 응원합니다